

##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 극복

김 태 현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1. 머릿말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의 하나로서 존속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집단이 가족일 것이다. 가족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를 창조할 일꾼을 길러내고, 사회생활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분홍빛으로 채색된 가족에 대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어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가족은 인간의 공동체적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생활단위로서 사회와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가족원의 생존과 재생산을 유지, 발전시킨다.

공동체적 삶은 '가족공동체'와 사회적 공동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통사회에서의 원시적 공동체는 가족과 사회적 공동체의 본질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원시적 공동체가 가지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 와서 공동체적 삶은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족의 이기적 삶은 이웃간의 인간관계의 불신과 단절을 낳았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사랑, 평등,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초기 공동체적 사회의 목적과 본질을 되찾아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족구성원들은 이념적으로는 평등주의 사상을 지향하지만 실제 행동수준에서는 가부장적 수직구조의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혼, 청소년, 아동문제, 아내구타,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문제의 증가는 건강한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족과 사회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분열의 위기는 가족 내 문제 발생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로를 단절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보다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생활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이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 한국가족의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내면적 근대화 없이 유입된 외형적 근대화가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또한 가족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기도 전에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교육 경제제도 등 급속한 변화로 가족생활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가족문제야말로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커지고 이는 다시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어진다. 따라서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 한국가족내부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가족내의 여러문제 현상들이 사회의 구조(경제, 교육제도)와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어 이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통일 이후 재구성될 수 밖에 없는 이산가족들의 문제와 국가의 통제를 철저히 받으면서 전통적인 면이 상당히 남아있는 북한가족과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privacy를 강조하는 남한가족이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의 원인

지난 30년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가족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은 가족 자체에 있었다기 보다 가족을 에워싼 친족과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데서 가능하였었다(이기숙, 1993). 그러나 산업화는 직장과 가족을 분리시키고 분업화되고 관료적인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은 구조적으로 핵가족화 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도 사회의 전문기관으로 많이 이전시켜서 현대가족은 자녀의 사회화와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적인 장소로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대가족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사회,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또한 산업경제의 개발은 가족의 소비생활을 향상시켰지만 가족구성원(특히 남편)이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아지게 하고 경제위주의 정책은 직장위주의 생활과 가족생활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부부나 부모자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산업경제개발에 따른 노동력수요의 증가와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가사, 자녀양육 역할을 새로이 분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장경섭,

1994).

통계청 자료 (1998)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률(crude divorce rate)은 1970년 대 초반에는 0.4 에서 1980년 초에는 0.8, 1990년 초에는 1.1, 1997년에는 2.0의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혼의 사유에서 부부불화에 의한 이혼이 1970년에 64.5%에서 1980년에는 80.9%, 1996년에는 8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국가구 중 77%가 핵가족을 이루고 있듯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7) 우리 나라 가족생활에서도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현대가족의 역할과 기능, 체계적 특성이 전통적 가족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면서 부부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거의 무 방비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997년에 발생한 이혼한 부부 중 33.3%가 5년 안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구타로 인한 이혼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을 조사한 심재근(1992)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중 42%가 남편으로 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타가 일어난 시기는 결혼 1년 이내가 70%를 차지하였다. 이는 부부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정현숙, 서동인, 1994), 부부간의 갈등해결의 상호 작용 형태 또한 결혼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 A.Lloyd, 1987: 유은희, 1994)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가족의 구조를 핵가족화 시켰을 뿐 아니라 평등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을 널리 보급시켰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태도는 일반 가치관이나 제도적 변화에 비해 느리게 변화하고 있어 현대 한국가족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소와 평등주의, 개인주의적 요소가 혼재해 있어 가족의 기능적인 해체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간의 세대 차이도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보다 더 작용할 수 있다. 부모의 권위는 직장이나 일에서 획득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형성될 수 있는데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 발달과 자녀들의 교육 증대는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세대보다 평등사상에 더 많이 접촉해온 자녀들은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여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위주의 사회구조는 자녀교육을 대학졸업위주의 교육으로 왜곡시켜 사회· 정서적 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의 심한 부족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종래에는 하류 계층이나 좌절이 심한 청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소득 면에서는 비행 집단과 일반집단의 차이가 없고, 학생들에 의한 범죄 분포율이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성호, 199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전통적인 가족생활에서 행해지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의 생활패턴은 현대 가족에서는 더 이상 기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가 정립되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거의 확대가족에서는 긴밀한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또는 친족 구성원을 위협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였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생산이 가족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역적 사회적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과거 농경사회에서 형성되었던 긴밀한 친족집단의 형성은 어렵고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도 많이 약화되어 있어 친족의 보호기능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계층은 노인이다. 노인은 과거에는 막강한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핵가족에서는 소외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있으며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대두되기 조차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노인의 부양은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 왔으며, 효에 의거하여 하나의 미덕으로서 노인의 부양이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노인은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표 1. 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

동거가구	1981	1985	1990	1998
기혼자녀 동거가구	69.1	54.8	49.2	52.6
장남부부	47.3	39.4	35.5	30.9
기타아들부부	18.3	12.6	10.2	15.3
딸부부	3.5	2.8	3.5	6.4
미혼자녀동거가구	11.3	23.5	25.2	14.9
노인단독가구	19.8	20.5	25.1	27.1
부부단독	.	.	17.2	(독거
독신	.	.	7.9	제외)
손자녀 동거가구			.	5.2
기타(친족, 비혈연)		1.8	1.5	0.2

자료: 김태현(1981: 도시와 농촌의 60세이상 노인 400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5: 전국의 60세이상 노인 3,704명 실태조사)  
 박정은(1990: 도시와 농촌의 60세이상 노인 1,005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의 65세이상 노인 2,372명 실태조사)

핵가족의 진전에 따라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별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여 단독세대나 노인부부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곧 자녀가 노인을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족의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건강·서비스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한국가족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난

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가족문제는 구조적인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현상을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가족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었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 3.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 극복

21세기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리라 예상하지만, 이는 발전의 토대가 안정되었을 때 가능한 예측이다. 발전의 토대란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의 욕구와 능동성을 지닌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의 삶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경제는 후기산업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사고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평등주의 개인주의 가치관이 혼돈 되어있어 가족생활이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그 동안 가족복지를 위한 정책은 개인 또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집단에게만 부분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는 일부의 문제는 해결해줄 수는 있지만 가족이나 사회전체집단에게 확산되지 못하여 현재 만연하고 있는 가족해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제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집단 그리고 다양한 가족(한 부모가족, 재결합가족, 독신가구, 동거가족, 공동체가족)의 가족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을 상호 연계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도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를 하여 학교와 가정,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계시킨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동체 분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생태학적,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2.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가족 생태체계

---

<p>1) 가족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가족(자녀, 부부, 노인)부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 에너지, 가족관련 정보수집 및 전달능력, 인간발달 변화에 대한 지식 경로효친적 태도</li> <li>· 비 인적 자원: 가족부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건</li> </ul> <p>2) 인접환경(micro-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환경: 친척, 친구, 이웃,</li> <li>· 물리적 환경: 거주지(필요시 양로원, 요양원)</li> </ul> <p>3) 광역환경(macro-environment)</p> <p>사회체계: 인접환경을 둘러싸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작용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환경: 법, 규범, 정책 및 제도 이혼 전 부부의 결혼 및 가족상담의 의무화(민간단체의 활용), 가정폭력방지법의 효과적 실천, 학교에서 비행아동을 위한 전문상담원 확보 및 가족상담의 의무화, 노령수당제도, 노부모 부양자 세계금융지원(노부모가구에 대한 면세, 주택상속공제와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세금감면, 노부모 부양수당) 경로우대제도, 효행자 포상제도 등 기존 제도의 강화로 질적 향상 도모</li> <li>· 경제적 환경: 연금, 의료보험의 혜택을 다양한 가족(동거가족, 공동체가족, 미혼모 가족)과 일반 노인에게로 확대,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li> <li>· 사회문화적 환경: 지역사회 내 가족상담소 설치(부부문제, 자녀문제, 노인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실시). 직장공동체에서의 부부, 부모,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의 유휴노동력 활용(자원봉사자, 유급 가정봉사원). 재가노인서비스 확대, 통합형 양로원 및 요양원,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전문병원의 확충, 지역사회에서 가족단위 프로그램 제공(노인부양자모임, 학교운동회를 공휴일에 실시).</li> <li>· 기술적 환경: 부부,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을 위한 TV,비디오, 가족생활관련 인터넷 웹 사이트 개발 및 홍보(www.consult.or.kr; www.sweetcare.com; www.home21.co.kr; www.jubu21.or.kr등)</li> </ul> <p>자연구조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환경: 공기, 태양, 온도</li> <li>· 인공환경: 공원, 고속도로</li> </ul>
---

---

#### 4. 맺음말

첫째, 산업사회의 전문화, 분업화 현상과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이기주의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공동체 분열현상이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 부부교육, 노인교육 등의 가족생활교육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시 또는 지원해야한다.

셋째, 가부장적 특성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양성 평등적인 가족생활이 영위되어야만 부부간, 노부모와 기혼자녀 세대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넷째, 효의 현대적 해석과 실천 가능한 효 행위에 대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다섯째, 오늘날의 한국가족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족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의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한다.

여섯째, 가족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정보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가족문제를 전문적,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의 전문기관(가족정책위원회 또는 가족부)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노성호(1993), 청소년 비행의 개관,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개발원(편), 서원
- 오욱환(1994), 가족과 교육제도-현대한국사회에서 가족과 교육의 관계탐색-, 가족과 사회제도, 한국가족학회 1994년 추계학술대회.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연구,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 1권.
- 장경섭(1994) 가족과 경제제도-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이 가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과 사회제도, 한국가족학회 1994 추계학술대회.
- 정현숙, 서동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도시가족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 1권.
- 통계청 (1997),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1998), 인구동태통계연보.
- Lloyd, S.A.(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s: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